

문화특종

정읍시 주택·건축 '우수'

부안군, 2017년 영농안정자금 50억원 용자 지원신청 26일까지

부안군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을 위한 2017년도 영농안정자금 50억을 용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안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이다.

금리는 농기부담 1%이며 지원 한도는 농업인 5000만원, 생산자단체 7000만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금융기관 대출확인 가능 여부 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내년 1월 초 필요한 자금을 용자 지원하게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올해 영농안정자금은 영농 준비기간인 1월에 용자받을 수 있도록 계획돼 있어 자금이 부족한 농가가 적시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데랄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라며 "영농안정과 소득증대 효과 등 농업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교월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월례회의 개최

김제시 교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동장 김태환, 민간위원장 박경준)는 22일 교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안건은 긴급구호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지역특화사업 추진, 2016년 사업결과 보고, 위원 추가 위촉 대상자 추천, 2017년 자체 복지 사업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협의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민관협력 공모사업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10가구를 발굴하여 긴급구호비를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2가구와 장수사진 촬영 등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개월간 교월동 맞춤형복지팀과 협의체의 활동을 담은 동영상도 시청하며, 교월동 복지대상자 현황의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복지지원 발굴 및 확대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지속적으로 나눔 문화 확산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김제시는 22일에 김보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관계공무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향상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법정외무 교육지원 사업으로 김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속 열건영 강사를 초빙하여 인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 소방 안전 등에 대하여 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시설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행동원칙, 인권침해 사례 및 인권침해 사전 예방과 사후복구 조치, 그리고 시설 종사자 인권침해 및 이용자에 의한 종사자 성희롱 사례를 중심으로 다뤄 교육의 효과를 배가 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제시 관계자는 내년도 6월에는 재무·회계 및 나눔문화과정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도 종합평가에서... 이철준·박진희·강성선씨 도시사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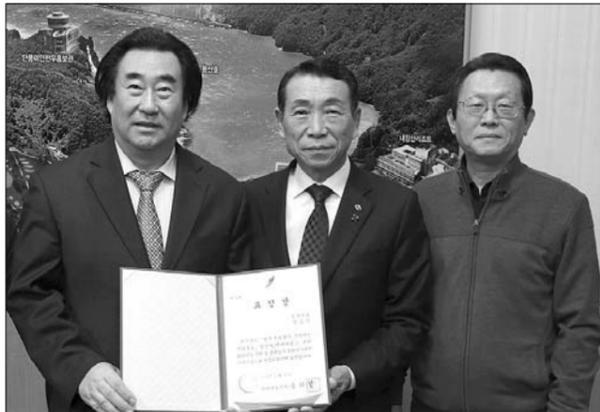
정읍시가 2016년 전라북도에서 주택·건축분야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과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그리고 공동주택 운영관리와 저소득 계층 임대 보증금 지원사업 등 7개 분야를 평가한 결과 시부 우수기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건축행정 건실화분야에 시설 8급 이철준씨와 주거급 지원분야에 사회복지 7급 박진희씨가 공무원 부문 유공자로서 전북도시사상을,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분야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유공자인 강성선(61세/정읍시 연지동)씨가 민간인부문에서 전북도시사상을 수상했다.

시는 특수시책으로 정읍사랑 봉사단 운영과 도심 빈집 정비사업, 새마을사업 등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정읍사랑 기술봉사단은 지난 2005년에 건축과 및 시 산하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직원들로 구성됐다. 회원들이 납부한 자체 회비로 매년 불우소외계층 20세대를 선정해 주말을 이용하여 월 2회에 걸쳐 봉사활동을 펼치



정읍시가 2016년 전라북도 주택·건축분야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며 더불어 살아가는 정읍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도심 빈집 정비사업은 5년간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시에서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해 시민들의 생활편의 증진은 물론 시가지 환경 개선에 기여해 오고 있다.

새마을사업은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와 도비 33억원을 지원받고 시비를 더한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산외면 평사리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주택과 마을 안길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 생활 위생 안전 등 생활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최우수'

부안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2016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농촌진흥청이 매년 각 시군의 각종 시범사업 및 농촌지도사업 추진실적과 농촌지도사업 추진 협력 정도, 예산확보 및 관리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사례를 발

굴하고 이를 지역농업 발전의 토대로 삼는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다.

부안군은 특화작목을 활용한 R&D 개발, 영농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영농철인 3월부터 11월까지 꾸준히 영농현장 활동을 실시해 농업인과 함께 하는 지도사업을 펼쳐 농업인의 호응을 얻었으며 농기계 임대사

업소(2개소)·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참뿔연구소 등을 운영하면서 농업인들과 호흡을 맞춰가고 있다.

특히 부안군은 매년 농업인대학 운영과 농업인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전자상거래 교육 등을 꾸준히 실시한 공로를 인정 받아 최우수 기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국정시책 합동평가 추진실적 점검

이승복 부시장 주재 점검 보고회 열려... 23개 지표 실적 향상 대책 논의

김제시는 지난 21일 2층 상황실에서 실과소장과 실무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대비한 2016년 지표별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대책보고회에서는 11월말 기준으로 전체 110개 평가지표 중에서 자원봉사참여율, 국유재산대장 정비, 압검진 수검률 등 12월말까지 노력 여하에 따라 실적 향상이 가능한 23개

지표를 선별하였고 부서별로 실적을 향상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제시는 지난 7월부터 합동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을 위해서 부서별 단장으로 부서 협업 체계를 가동해 왔으며, 6차례에 걸친 대면보고회, 실무담당 워크숍, 전문가 컨설팅과 교육, 주간보고 등을 통해 실적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또한 29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3건이 전라북도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정성평가 분야에도 내실화를 다져왔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맞춤형 실적 관리로 56개 지표가 상위등급으로 상승하는 등 노력의 결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승복 부시장은 행정의 선진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장애아동들에게 털모자 성탄 선물

유진섭 정읍시의회 의장, 희망지역 아동센터 방문

정읍시의회 유진섭 의장은 성탄절을 맞아 지역의 소외된 장애아동들을 방문하여 성탄 선물을 나눠주며 위로 격려하였다.

지난 21일 정읍시의회 유진섭 의장은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발달장애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희망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장애 학생 17명 모두에게 털모자 및 양말세트를 나눠 주었으며 그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작은 꿈과 삶의 희망을 나누어 주었다.

유진섭 의장은 평소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아동 및 노인들에게 많

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지난 월드비전에서 실시하는 사랑의 도시락 나눔 배달 체험과, 장애인단체에서 재가 장애인에게 나누어주는 사랑의 김장박스 나눔 행사에 참석하는 등 소외된 자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진섭 의장은 "앞으로도 우리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더 많은 봉사활동을 통해 다함께 행복하고 밝은 정읍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진짜 하고싶은 일 찾아주는 5가지 꿈팁'

서동호 꿈문화기획자 초청 강연... 김제 중·고 3년생 대상

김제사랑장학재단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중·고등학교 3학년 400여 명을 대상으로 22일 김제시청 지하대강당에서 서동호 꿈문화기획자를 초청하여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강연을 개최하였다.

이번 초청강연은 대학 및 고교 진학을 위해 학업에 열중하던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위해 학업으로 인해 쌓였던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진로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김제시와 함께 추진한 행사였다.

이날 행사 시작 전에는 김제여중 3학년들이 그동안 갖고 뒀었던 댄스 및 노래 실력을 뽐내는 자리도 있었으며, 내고장학교보내기 격려곡, 김제사랑 장학금 지급, 지평선학당 방과후 프로그램 등 김제사랑장학재단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장학사업에 대해 설

명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인생전환점에서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진로 강연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찾아주는 5가지 꿈팁'이라는 주제로 '나의 미래를 위해 내가 가야 할 길은 내가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여야 하며, 시련이 있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작가 자신의 경험을 통한 강연으로 참여한 학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농협, 고창부안축협에 시차단 방역요원 위로금 전달

부안농협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D) 발생으로 손해를 입은 축산농가와 차단방역에 힘쓰는 방역요원들에게 세달리며 21일 고창부안축협을 방문해 김대중 조합장에게 위로 성금을 전달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곁감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1.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 | 750ml 1ea/12% |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ld Wine

GIFT SET 4.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 | 375ml 5ea/13% |
GIFT SET 6. | 500ml 4樽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 | 375ml 2ea/13% |

KOREAN TRADITIONAL WINE
GANGSANMYEONGJU

TEL : 083-504-9900
www.gangsanwine.com